東大新聞

發行人 金法麟 編輯人 元大康 印刷人 金康 主幹

發行所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②1685 1686 8611

(每週金曜日發行) 六個月分·200원

總長에 金法麟博士 就任

六個施政原則을 宣言

敎授會議 强化등 理想的인 百年大計 다짐

內外의 歡迎裡 就任式盛了

文敎部는 지난七月二十日 財團理事會의 決議를 받아들여 鄭와石總長의 就任承認을 取消하고 後任에는 同門 金法麟博士의 就任을 承認, 三十日엔 第四代總長 金法麟博士의 就任式이 內外의 歡迎속에 盛大히 擧行되었다。이날 金法麟博士는 그의 就任辭를 通하여 學問第一主義에 立脚한 六個施政原則을 굳게 다짐하고 世界性과 現代性을 띤 科學的인 學究方法으로 새로운學風을 수립할것이며 敎授와 學生들의 모든與件을 갖추기에 最善을 期하겠다고 宣言하여 많은 期待를 모았다。

<金 總長>

<金總長 就任式光景>

金總長略歷

(一九九九年8月23日生) 京城佛

▲一九二〇年 中央學校卒業 ▲一九二六年 京城帝大哲學科卒業 ▲一九二八年 巴里大學文學部 ▲一九二八~一九二九年 巴里大學哲學科 ▲一九二八~一九二九年 巴里大學近世哲學研究 ▲一九二八~一九二九年 巴里大學哲學研究 ▲一九二八~一九二九年 巴里大學哲學研究 ▲一九二八~一九二九年 巴里大學

한마음, 한뜻으로 學問의 搖籃을

—金總長 就任을 歡迎하면서—

社說

오랫동안 본校紛糾 問題는 文敎部의 斷案으로 일단락되고, 第四代總長에 金法麟博士가 內外의 聲援과 歡迎속에 就任하였다。 新任 金總長은 그의 就任辭에서 意欲的인 고도 希望에 찬 六個施政原則을 提示하여 앞으로 本大學校의 發展에 커다란 期待를 하는 바이다。

牽直하게 前進없는 沈滯와 萎縮의길을 걸어 왔다고 해도 過言이아니다。 新任總長에게 期待가 크면 클수록 지난날의 暗澹했던 踏步가 아쉽고 慨嘆의 情 또한 禁할수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大學으로서의 口實 皆無이 없던 것도 否認할 수 없다。 大學의 整備와 改造問題에서 5·16革命以後 提起되었든 것이다。 研究施設이나 主張하는 것이 아니고 그 與件을 解決해 주어야 大學은 正常化되리라고 믿는 것이 大學의 使命이다。 이는 오로지 大學의 自己犧牲이 없지는 않으나 소리도 높아 왔던 것이 아니라 「大學文盲」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는 一大奮發의 要請이 있는 것이다。

大學自體內에서 이와 關聯하여 敎授陣의 强化와 學生의 質的 向上 問題가 자주 論議되어 왔던 것이다。 이 理由와 相當한 內部的 非難이 있었기 때문에 學生의 運營者 完璧하고 敎授 및 學生의 信任이 높았다면 구지 이러한 窒息 없었어도 不美한 現實을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오로지 大學의 使命 이외에 없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例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사실 大學은 우리나라 最高 知識人과 知性人들의 集團이라는 것은 不美한 理想的인 人格의 陶冶로 互讓精神을 기르는 模範 社會이고저 한다。 그래서 少數 人의 獨善的인 言動을 破壞的言動을 警戒하고 一切의 偏派와 偏見은 단호히 拒否한다。 여기에 大學은 눈을 權威와 矜持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다。 學生 사람으로말미암아 貨幣機能및 手段의 向上 食糧의 供給이 없이 發達如何에 따라서 農 産物의 商品生産化가 促進되었기 때문에 農産 生産의 過程은 商品化 商品生産 發達과함께 消 高業의 會的 分業을 土臺로하고 長化의 商品 生産化가 이루어진 原因 一部는 「租稅의 壓迫 增加시켰고 農民에대한 必要을 貨幣에 農民으로하 여금 生産物의 大部 分을 商品에로 轉化시 켰으며 同時에 農民에 게 資本家 生産物에 의 購買者 生産 의 立場에서보면 原料 費者 特히 건 都市消費層 이 食糧의 供給 式에서 資本主義化의 方 向으로 진행하여 갔다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資本 主義 社會는 經濟組織은 産物의 商品生産化가 基礎 進展되었기 때문에 農産 生産의 商品生産 過程은 商品化 商業의 發達과함께 消 長되었다。 이러한 農業 生産의 分業 一經營單位內에서 分業 增加시켰고 農業으로부터 分離시 켰으며 商品에로 轉化시 켰으며 農民에게 生産物의 大部 分을 商品으로 하고 同時에 農民에게 生産物에 의 一部는 「租稅의 壓迫 및 貨幣에대한 必要을 이루고 農民으로하 여금 生産物의 一經營單位內에서 分業 高業의 商品生産 發達과함께 消 長되었다。 이러한 農業內 의 自然的 制約을받는 生産化가 이루어진 原因 은 獨立 된 分野는 아닐지라도 同 一部는 獨立 生産 機構 造中의 農業도또 有機的 産業 構造인 한 産業 의 一經營單位內에서 分業 이루고 農業으로부터 分離시 켰으며 商品에로 轉化시 켰으며 農民에게 生産物의 大部 分을 商品으로 하고 同時에 農民에게 生産物에 의 一部는 「租稅의 壓迫 및 貨幣에대한 必要을 이루고 農民으로하 여금 生産物의 一經營單位內에서 分業 高業의 商品生産 發達과함께 消 長되었다。 이러한 農業內 의 自然的 制約을받는 生産化가 이루어진 原因 은 獨立 된 分野는 아닐지라도 同 一部는 獨立 生産 機構 造中의 農業도또 有機的 産業 構造인 한 産業

学園本然의 使命을 다짐

初代·三代·新任總長 共同聲明發表

全東大人에 五個項의 所信强調

一切의派閥을斷然排擊

大學은 學問自體가目的

本校初代總長權相老博士、前三代總長鄭石博士、新任總長金法麟博士는 그간 本校紛糾의渦中에捲入되었었음은 最高의目的」이라고 明白히 敎授가 그責任이 自招한데있음을 全力할것을 다짐하고 學園本然의使命完遂에 스스로責하면서 學園本然의 五個項目의 共同聲明書를四日發表하고敎授·學生및 同門들의 아낌없는努力과協助를 促求하였다。새博士共同의 同聲明書에서는「學園은 如何한것의 手段도 필수없고 그것自體가 最高의目的」이라고 明白히 敎授는 自由로히 가르치고 學生은 安心하고 學園本然의 神聖한使命을 如何한 사람이나 어떤理由로도 妨害되어서는 안되는 聲明書全文은 다음과같다。

聲明書

大道는 一切를超越한 것이다。超越하였으므로 能히 一切에 普遍된다 그眞理는 일찌기 佛陀가깨달으셨고 그깨달은바를 젊은知性人들에게 널리 펴기 爲하여 우리東國大學校는 設立되었다 그러나 그根本目的은 아직 제대로 遂成되지못했다。뿐만아니라 近來에는 紛糾의渦中에 捲入되었으니 千萬遺憾이라 아니할수없다。이러한事態는 外部의 干涉때문이라기보다 內部에서 自招한 것이 事實이므로 責任을 맡아보는 우리는 甚히 부끄러움을 禁치못하는바이다。우리는 이제 그 責任을 他에게 轉嫁하지 않는다。敎授諸 利私慾에 狂奔하였음은 造作하고私 이다。 그것自體가 最高의目的이다。 敎授는 自由롭게 가르치고 學生은 安心하고 學園本然의 神聖한 使命은 如何한사람이나 어떤理由로도 妨害되어서는 안되는 聲明書全文을 다음과같다。

文壇에 四名이나「데뷰」

自由文學社新人作品募集에當選

○…沈滯와踏步속에 「東國」出身。그동안 월세인 文壇에 「東國」 校內外의 新聞과雜誌 一九六三年度 朝 보는 이번 當選된 四名 이 데뷰하였다 의 점은 氣鋭 를통하여 꾸준히 資 鮮日報社『新春文藝』

自由文學社新人作品募集에서 詩에 李愚碩(國四) 曹允鎬(物四) 兩君과 國文科出身 朴鎭煥同門이評論에、李秀春同門이씨나리오部門에서 많은 競爭을 물리치고 당당히 當選의榮光을차지하여 文壇에 데뷰하게 되었다。

○…嶄新한 新人發掘을위하여 實施해온 이번이 總當選 第九回가되며 四名이 名。六月의入選者 二九、○六四名에比해 큰 差異를 내지않고 이번 冊部門別로는역시 法政系가首位。그래서 今年高等考試司法科 一次에는 49名의 學生이 合格의榮冠을 얻었다。

○ 한편 앞으로 낭은放學도 健全한마음이 七月한달 깃드노니、心身의 단련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學·處·課長級一部更迭

法政大學長에 金基洙敎授

敎務処長署理엔 趙殷澤敎授起用

一日學校當局은 金法麟新總長就任後 事務局長과 庶務、經理、學籍課長等을 更迭、새로發令했다 이날 밤혜진바에依하면 朴 商鎔前法政大學長의 辭表를 受理하고 金基洙敎授를 起用發令하는 한편 敎務處長에는 金 炳奎前處長의 辭表를 受理하고 趙殷澤敎授를 處長署理로 金在壽前事務局長은 佛敎文化硏究所 參事로 轉任發令했다 첫人事措置로서 法政大學長、敎務處長을 비롯한 事務局長 金法麟新總長就任後 更迭、새로發令했다 이날 밤혜진바에依하면 朴 商鎔前法政大學長의 辭表를 受理하고 金基洙敎授를 起用發令하는 한편 敎務處長에는 金 炳奎前處長의 辭表를 受理하고 趙殷澤敎授를 處長署理로 金在壽前事務局長은 佛敎文化硏究所 參事로 轉任發令했다

(趙敎務處長署理)

(金法政大學長)

(金事務局長)

事務局長엔金顯章氏

(金法政大學長)

(趙敎務處長署理)

(金事務局長)

(李財團事務局長)

(李經理課長)

(張學籍課長)

「東友體育會」發足

母校體育發展에寄與

東友體育會創立總會光景과 尹會長(圓內)

「文學東大」傳統을 誇示

詩部門에 李愚碩、曺允鎬兩君

朴鎭煥(評論)、李秀春(씨나리오)同門도

文學東大 物理

金宗植氏來校

圖書를寄贈한

15個地域서奉仕

本校農村奉仕隊員들

日本農務省 政務次官 大谷氏來校

金總長과韓·日佛敎界論議

勝優고 티치지 물리「팀」個五등 서울大

「TV·퀴즈·아카데미」서 팀校本

講座案內

劇會「東國」을 創立하고

10日, 發起人會開催

全員無事히歸校

山岳班漢拏山登攀隊

東國大學校 八月四日

山과바다 外面한 讀書三昧

즐기찬意慾…긴放學도 오히려 아쉬워……

DONAM ACADEMY
東大生 半額 公認
돈암학원
場所 돈암동 동도극장옆 석조건물 ⑥6316·8131
院長 鄭奎完

現在接受中
大學生을 爲한 講座
英語最終完成
TIME 아침 6·00~7·30
강사 鄭謙植 先生 美國(매릴랜드주립大學) 出身
英語의 綜合硏究및 留學準備
三位一体
아침 6,20~7,30 강사 朴洛遠 先生
저녁 6,45~7·55 8,00~9,10
社交會話
저녁9,15~10,05 강사 鄭謙植 先生
韓人會話
저녁 9,15~10,05 李共雨 先生
獨語大講座
저녁 5,30 6,40 강사 李共雨 先生

大學生을 위한 講座案內
時事英語 就職準備를 中心으로
前Korean Redublic 編輯局長 朴雪松
TIME
새벽 7,00— 8,30
아침 9,40—11,10
저녁 6,30—8,30
Digest
새벽 8,30—9,30
저녁 5,30—6,30
三位一体
저녁 5,30—6,30 朴雪松 교수
英語實力基礎
새벽 7,00—8,30
저녁 4,30—5,30
〃 6,30—7,30 崔仁 先生
會話 Spoken Americcan English
Ameriphone Lingnguaphone
實用會話 DIXSON 4
佛語 獨語 初·中·高級班 8月中
時事英語는 수시 접수 ⑥ 1983
콜럼비아학원
現在 登錄接受中 종로和信옆골목

本報廣告및購讀申請은
②1685~7, 8611~2
東大新聞社

日語講座
전혀 日語를 모르시는 學生을 中心으로 100分講義로 一個月에 完成하며 漢文이 석인 잡지는 대략 읽을수 있게 책임지도함
開講8月5日 現在 接受中
콜럼비아학원
鍾路和信옆골목 ③ 1989

人的資本開發에 關한 問題

(上)

任香根

論壇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第2次年度가 半이나지난지금, 經濟現象은 波動하고있다 이計劃을 推進시키기에는 너무많은 矛盾이있어 修正에 거듭하고 있거니와計劃上에 가장 重要한 問題임에도不拘하고等閑視해버린 「人的資源開發에관한 問題」에대하여 論述하고자한다

○(一)經濟五個年計劃의性格과 人的資源開發의重要性○

우리人間의 生活에는 物資와用役(service)의消費가 수반되는 것이며 이 消費하기를爲해서는 스스로가 이들을 生産해야 하는것이 다이를 가리켜 우리는 經濟現象이라 하며 이 現象을 維持함은 勿論 증대 發展시키기 爲해 人間은 鬪爭을 게을리하지않았다 그리하여오늘에 와서는 많은學者와많은 理論이 나왔고 또한 우리 人間은오늘날과같은 豊富한 物質文明속에서 生活을營爲할수 있게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周辺에는 恒常貧富의 差가極甚하고 적게는 個人對個人 크게는 國家의弱肉强食이 橫行하고 있음을 보게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矛盾을 除去하기 爲하여 生活의平準化 對外的으로는 經濟開發活動이 實施或은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날의 貧困과 惡循環에서 벗어나 世界史의 潮流에合流하여 「後進國」이라는汚名을 씻고 自由로운經濟活動을 土臺로 하여 經濟의 自立的 成長과 工業化의 基盤을 確固히마련하여 國民經濟의 均衡的 發展과 國際收支의 均衡을이룩한다는 目的下에 總3千2百億원을 投資하여 問題 生産目標및 거기에 所要되는 投資額을 決定하기 爲해 微視的 産業構造를 改革하고年接近方法을 取하였으며 平均七、一%(一九六○年基準) 經濟必長을達成한다는 것이다」 이計劃의 樹立에는 第一段階作業에서 Rosenstein Rodan의 經濟成長率公式을 基本으로 하여 巨視的 接近方法을 取하고, 第二段階作業에서는 個別事業計劃의 調和하여 均衡成長을 模索한 것이다 그리므로 보는 것이 이計劃은 經濟成長率을 個人當所得(但開發國家의 指摘됐다 産業化過程이라는 論文에서) 一個全體의 經濟力增進、即國民所得增進을 目標로하여 樹立된 것이다 이計劃의 資本調達과 投資比率을 係數化하고 經濟成長을 擔當할 人的資源에 대해서는等閑視하고 指摘하지 않은 것이다 이 人的資源에 關한諸學者의 理論을 提示해보면 바우어(K. Baur)敎授는 「오늘날 低開發國家에서 經濟發展을 크게 阻害하는 原因이發展에 必要한 先行해서 有한 經驗과 技術을 缺之한 人間資源의 이러한 指摘하고 이러한 人間資源의 缺乏은 開發에 對한 力量 및 그리고 蓄積된 知識을 使用할수있는 實驗에 依한 訓練을 通하여 人間資源이 經濟成長보다 더욱 큰 重要性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人間資源이 經濟成長에 依해 過成長을 낳게됐다는事實을 알아야 하는것이다 이와같이 經濟成長에서 핵심적 存在라는 開發의 觀點에서 이의 再認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現代의 經濟成長은 人間資源의 開發에서 이의 重性은 現代의 生産活動 및 經濟發展에 依한 資源의 開發에 對高 最投 資先의 順位가 주어져야 指摘되고있는 것이다 이나라 이러한 人間資源의 諸國家에 開發을 促進하고 UN의 한 한 한